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골판지포장 기업 환경 분석 좌담회 개최

조합 신년회와 함께 열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종우)은 지난 달 9일 팔래스호텔 궁전홀에서 조합 신년회 및 골판지 포장 기업환경 분석 좌담회를 개최했다.

골판지포장산업 최고경영자들의 2006년도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빙한 가운데 열린 좌담회에는 골판지포장기업 최고경영자와 골판지원지업계, 설비 및 무역업계 최고경영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 앞서 조합 류종우 이사장은 "2006년은 골판지포장업계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대응을 적절하게 한다면 우려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만큼, 골판지포장업계 뿐 아니라 전체 연관업계 차원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들의 경영혁신 의지와 상호 유대 강화를 당부했다.

김진무 전무이사는 2006년도 새로이 변경되는 골판지포장업계의 제도 변화 내용과 조합 사업 방향을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골판지포장 기업 환경 분석 좌담회 개최

보고했다. 좌담회의 초청인사인 산지유통인 중앙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배추유통과 포장화 필요성"에 대해 강연을, 인 정보시스템 강동진 사장은 "골판지포장 정보 전산화 방향과 교육시스템 활용 제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는 금년도에 변화되는 제도와 경영환경을 주로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 참석인사들의 2006년도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포장기계협회

Sino Pack 2006 한국관 사업 설명회 개최

중기청 부스료 지원 사업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지난 달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광조우에서 매년 개최되는 Sino Pack 2006 전시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할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Sino Pack 2006 전시회는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중국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중국 상해 및 북경지

▲ 한국포장기계협회 Sino Pack 2006 한국관 사업 설명회 개최

역 전시회 참가에 이어 중국 광동지역 전시회의 추진사업으로 중기청의 전시 참가료 지원 사업으로 계획된 한국관 사업이다.

이 전시회에는 전시면적 1만㎡에 유럽 국가를 비롯, 미국 일본 홍콩 등 15개국 2백여사가 참가가 예정되고 있다.

이 전시회의 한국관에는 (주)한국크리에타, 을성정공, (주)가성팩, (주)선진에스엠, 한국뉴매틱(주), (주)스카이소프트젤, 천세도요기계(주), (주)리팩, (주)코마스, (주)경연점람, KPMA 등 11개회사에서 참가를 신청하여 총 1백8㎡의 한국관으로 계약돼 국가관으로의 손색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업체별 부스위치를 확정졌으며 전시품 선적일정 및 여행 출장 일정 등의 설명이 있었으며 한국포장기계협회 김영순 부회장은 전시회 구성에 대한 설명과 참가사에 대한 완벽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으며 "협회가 중기청으로부터 전시 참가료 및 장치료 일부를 지원 받아 진행하는 전시회로 완벽한 한국관 구성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PLA 할당관세 추천 기관 지정

할당관세 세율 4%에 한계수량 1만8천Mt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회장 석용찬)가 산업자원부로부터 2006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된 폴리락틱산(Poly Lactic Acid, PLA) 품목에 대해 활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PLA에 대한 활당관세 한계수량은 1만8천Mt로 향후 협회로부터 활당관세 추천을 받으면 할당관세 세율 4%로 적용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생산자, 생산자 단체와 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문의 : 02-782-7880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

사단법인 인가

약칭 '포장기술원', 'PRETI' 사용

지난 2005년 11월 30일 창립총회를 가진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원장 노수홍)이 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원순환포장기술원은 2006년 1월 13일 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공식명칭을 「사단법

인 자원순환포장기술원」으로 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자원포장기술원의 영문명은 「Korea Packaging Resources & Recirculation Technology Institute」이며, 약칭은 한글 「포장기술원」, 한문 「包裝技術院」을 사용하고, 영문 약칭은 「PRETI」로 한글발음으로는 '프리티'로 불리게 된다.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의 설립에는 국내 포장, 환경, 물류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포장이 사용된 이후에 환경을 고려하기보다 포장을 개발하고 시작하는 시점부터 환경을 고려하자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설립 취지문에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ESSD) 자원순환형 포장 구축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혀 포장을 포장업계에서 스스로 해결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에서는 5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선 제품 포장단계에서 포장재 사용의 적극적 감량 · 감용화(Reduce)를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다음으로 포장재의 재사용(Reuse)을 추구하며, 폐 포장재의 재자원화를 위한 재활용(Recycle) 기술개발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열에너지 등으로 회수하는 폐기대책(Recover)을 수립하며, 마지막으로 포장용기를 회수 · 반복 사용할 수 있는 회수(Returnable)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은 사당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남병화 사무국장과, 김재우 이사가 상근임원으로 상주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

(사)자원순환포장기술원의 노수홍 원장은 "빠른 기간 내에 자원순환포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대에 부응하는 포장기술원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단법인 인가의 인사말을 전했다.

사단법인 자원순환포장기술원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46-17 자원빌딩 3층 우 156-090
- Tel : (02)3471-5071~2
- Fax : (02)3471-5073

(사)한국제약협회

COPHEX 2006 주관기관 참여 확정

수출 활로 모색 기대

2006년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06)과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제약 화장품 산업전시회인 COPHEX 2006(제약 화장품산업전)에 (사)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

수)가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COPHEX 2006 전시회는 제약화장품 생산설비 및 원재료, R&D관련 기술 등이 선보이는 산업전문전으로 한국제약협회의 참여로, 국내 제약, 화장품 산업발전 및 수출활로 모색에 큰 힘을 얻게 됐다.

이로서 코리아팩 전시회는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2006), 제약 화장품산업을 대표할 2006 제약 화장품산업전(COPHEX 2006)과의 동시개최를 통해, 식품산업, 제약산업, 화장품 산업 등 포장산업의 주 수요산업 종사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사)한국제약협회는 1945년 창립한 이래 60여년간 제약산업 발전의 구심체로서, 또한 제약기업 발전의 도우미로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2백15개사의 제약회사가 회원으로 구성된 제약산업의 대표적인 단체이다.

COPHEX 2006 전시회 홈페이지: www.cophex.com

한국물류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업무제휴 협약 체결

물류 IT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공동 추진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는 지난 달 19일 협회 회장실에서 산자부 산하의 IT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 박영기)과 업무제휴 협약식을 맺었다.

한국물류협회는 첨단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고부가 가치 물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물류와 IT기술이 접목된 물류 IT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물류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업무제휴 협약 체결

이를 위해 ▲ 물류산업과 첨단 정보시스템의 접목 관련 협동 연구 수행 ▲ 물류 IT 교육 및 물류 전문인력 대상 정보기술 교육 공동 실시 ▲ 정보시스템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및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 물류산업 분야에서 공인될 수 있는 물류 IT 자격제도 운영 방안 연구 ▲ 기타 물류 정보기술 발전을 위하여 상호 합의한 제반 사항 등을 제휴 사업으로 선정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표시제 계도기간 연장

오는 3월 10일까지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양곡표시제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당초 작년 말에서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양곡표시제는 당해 양곡의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연월일 또는 가공 연월일, 생산자 · 가공자 또는 판매원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이나 용기 등에 규격에 맞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양곡 가공 · 판매업자가 규정된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5만~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산연도 ·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 과대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원래 올 초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업체마다 아직 미리 만들어둔 재고 포장재가 많은 상황에서 제도 변경으로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양곡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벌여 변경된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3월 11일부터는 전 행정력을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했다.

위더스케미칼(주)

신 영 수
위더스케미칼(주) 대표이사

PVC 수축라벨, PP, PVC 수축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위더스케미칼(주)(대표이사 신영수)이 올해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위더스케미칼은 Shamorok Foosd, Walt Disney사 등 음료수 PVC 라벨을 수출하며, 신규라벨 Perforation 방식을 개발, 실용신안 했을 뿐 아니라 PE 스트레치라벨을 일본 특허에 등록하는 등 국내 포장 업계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PET 수출튜브 개발, PET 시트 회사 인수 등 제품 다양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PET 수축필름, OPS 수축필름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등 탄탄한 중소기업으로써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현재 위더스케미칼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관련 업계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새로운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앞으로 주력제품인 PVS, PP, PO 쉬링크 필름, PET 쉬링크 Tube, PET 시트 등의 필름 부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위더스케미칼(주)의 신영수 대표이사 사진을 위와 같이 정정 보도합니다.